민주당 경선이 본선…예비후보들 물밑 당심잡기 활발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 재선 도전 선언할 듯
민형배·이병훈 등 10여명 출마 관측
혁신당·국민의힘 등 야권후보도 준비

강기정

문인

민형배

이병훈

정준호

김정현

안태욱

서왕진

최현수

이종욱

내년 6·3 지방선거가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정치의 심장부' 광주시를 이끌어갈 시장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는 '당내 경선이 사실상 당선'이라는 등식 속에 일찌감치 후보들의 물밑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직 강기정 시장의 재선 도전을 중심으로 도전자들이 차례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로는 총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5~6파전 양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이 각각 대안 세력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현직 강기정 시장은 제17·18·19대 3선 국회의원을 거쳐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 당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호남총괄특보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풍부한 중앙정치 경험이 강점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 시장은 끊임없는 현장 활동과 성실한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성사시켰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율 높이기를 위한 '10시 출근제'와 '공공 어린이 심야병원' 등을 포함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을 전국 모델로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AI 생태계의 고도화를 통해 광주가 'AI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AX실증밸리 유치를 하는 등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내년 광주시장 출마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민 의원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과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노하우가 강점이다.

광주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100% 출석률을 기록하며 '의정 활동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22년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과감하게 탈당하는 소신을 보이기도 했으며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아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전남지사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거물 정치인 이낙연 후보를 제압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난 문인 북구청장도 광주시장 출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광주시 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 등을 두루 거치며 광주시 행정의 핵심 부서를 모두 경험한 '행정통'으로 꼽힌다. 문 청장은 '혁신적 성과'로 유명하다. 취임 당시 5700억원이던 북구 예산을 7년 만에 1조2000억원까지 확대시키며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6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13회 연속 예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상 7회 등 총 738회의 각종 수상 실적이 그의 탁월한 행정 능력을 증명한다.

정청래 당대표의 '호남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도 출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시작으로 광양군수,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 입성 1년 만에 광주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지역 발전의 황금 기회'라며 호남특위를 발판 삼아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도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서민 출신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진 정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국민의힘에선 현 광주시당 위원장인 안태욱 위원장이 출마의 뜻을 굳혔고 김정현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에선 중앙 무대에서 정책 역량을 입증한 인사와 지역밀착 신인 간 '투 트랙'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후보군으로 서왕진 원내대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개혁신당은 '조기 공천'을 공식화했다. 최현수 광주시당 위원장이 재선출되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보당에서는 이종욱 후보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광산구·광주시청에서 잔뼈가 굵은 현직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광주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을 거쳤다.

정의당은 녹색·돌봄·청년을 축으로 한 생활 어젠다를 재정비 중이다. 내부 잠룡들의 출마 저울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 전후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지사

김영록 3선 달성 여부 최대 관심
신정훈·주철현 등 현역의원 4명 도전
공천룰과 동·서부 민심 결집 여부 관건

김영록

서삼석

신정훈

이개호

주철현

김화진

전남지사 선거는 김영록 현 지사의 3선 달성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역대 전남지사 중 보궐선거를 제외한 완전한 3선을 달성한 도지사가 없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단수공천을 받아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사실상 3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에 맞서는 후보로는 4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과 각각 3선인 신정훈(나주·화순),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재선의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전남지사 역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을 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타 후보군을 앞서고 있는 게 강점이다.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 능력 지지율에서 단연 1위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3선의 마지막 관문인 당내 공천권 획득이 변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후보시절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 '컷오프'를 하지 않는 '노(NO) 컷오프'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호남 광역단체장 중 유일한 3선 도전자인 만큼 현역 감점 등 김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공천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직 지방선거까지 9개월 여가 남았지만 후보군 하나 둘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지지세 결집에 나서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우선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김 지사는 민선 7~8기를 이끌어오면서 긍정적인 도정 운영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지난 8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전월보다 3.9%포인트 오른 긍정평가 54.6%를 기록, 10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정통 관료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과 농림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두번의 전남지사직을 원활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번의 지사직을 기반으로 한 지역 내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특히 전남 국립의대와 재생에너지 산업, 흑산공항 건설 사업 등 을 진두지휘하며,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도내 현안사업 해결을 눈앞에 뒀다는 점에서 도민 지지가 높은 상태다. 현직인 김 지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현안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데 집중해 지지세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최다선인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사실상 전남지사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행정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2024년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 등 당내에서 굵직한 당직을 맡아온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지난해 치러진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의 '아슬아슬한' 승리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 군수자리를 빼앗긴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평가도 있다.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도 전남지사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 3선을 지내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와 중앙정치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을 지내며 전남 정치권 인사 가운데 대표적인 '명심'중 한명으로 분류된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역임했다. 대선 과정에 당내 조직을 아우르는 중책을 맡았었다. 신 의원은 과거 민선 7기 전남도지사 선거에 나섰다가 김영록 지사에게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경선에서 김영록 현 도지사와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에 이은 3위를 기록,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층 유입과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면 그 결과가 앞선 선거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도지사 도전을 공식화하지만 않았지만,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 국회의원인 서 의원도 전남도의원을 시작으로 무안군수 등을 역임하며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데다, 호남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당 지도부(최고위원)이기도 하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최고위원으로 지명되기도 했으며, 호남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입지를 넓힌 상태다. 서 의원은 지역구 내 조직력과 강한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주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원조 친명으로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재선 국회의원으로 6년간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농민과 해양수산인의 권익을 지키고,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관철했다"고 자평했다. 유일한 동부권 출신인 주 의원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 허경만 전남지사 이후 전남 동부권 출신의 도지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거 프레임'으로,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제 1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지난 민선 8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이정현 전 새누리방 당 대표의 출마도 거론되지만, 김화진 위원장을 전남도지사 후보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다는 중앙당 차원의 원칙 하에 전남도지사 후보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인물'을 중심으로 전남도지사에 적합한 후보를 공천한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장이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진 월출산 무위사 수륙대재(水陸大齋)

일시: 2025년 10월 18일(토) 오전 9시 | 무위사 대적광전

세종대왕의 명으로 나라의 통합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했던 조선 최고의
국가 의례가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현장에서 과거를 위로하고
현재를 축원하며 미래의 평화를 기원하는 숭고한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위사 수륙대재 전야제
창작국악뮤지컬 〈세종의 꿈〉
일시: 2025. 10. 17.(금) 오후 6시 30분
장소: 강진 무위사 대적광전 특설무대

조상의 평안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최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무위사
| 후원 | 전라남도 강진군 대한불교조계종